JENESYS 2026

한국대학생방일단 (제 2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대일 이해 증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 25명이,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일했습니다. 방일단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5년, 피재 지역 시찰과 일본의 방재'라는 주제 아래 도쿄도, 미야기현, 이와테현을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시찰, 일본 대학생들과의 교류, 주제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발신하였습니다.

【참가자】한국 대학생 등 총 25 명

【방문지】방일 (도쿄도 25 명, 미야기현 25 명, 이와테현 25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 학습):

2026 년 6 월 19 일(금)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2026 년 7 월 1 일(수)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시찰】고 이수현씨 추모 및 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2026 년 7 월 2 일(목) 【학교 방문·교류】테이쿄대학 (**帝京大学**)

2026 년 7 월 3 일(금) 미야기현으로 이동
【시찰】오나가와 (**女川**) 지역의 부흥 상황 : 방조제가 없는 부흥 사례
【시찰】이시노마키시 지진재해 유구 오카와 (**大川**) 초등학교

2026 년 7 월 4 일(도) 【시찰】미나미산리쿠 (**南三陸**) 지역의 지반을 높이는 부흥 상황, 진재유구 (**震災遺構**) 미나미산리쿠 방재대책청사 등, 진재유구 기적의 소나무, 진재유구 케센중학교,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전승관 이와테 쓰나미 메모리얼 뮤지엄, 【교류】홈스테이 대면식

2026 년 7 월 5 일(일) 홈스테이

2026 년 7 월 6 일(월) 홈스테이 해산식, 【강의・시찰・교류】이시노마키 센슈대학(**石巻専修大学**) 학생과의 공동 수업(이시노마키 시내 복구 상황 강의, 한일 혼성 그룹으로 실제 도시재생 현황 필드워크 및 복구 방안에 대한 토론, 그 성과를 이시노마키시청에 제언으로 제출), 성과보고회

2026 년 7 월 7 일(화) 센다이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6 년 7 월 2 일【학교 방문・교류】테이쿄대학	2026 년 7 월 3 일【시찰】오나가와 지역의 부흥 상황 : 방조제가 없는 부흥 사례
2026 년 7 월 3 일【시찰】지진유구이시노마키시립 오카와 초등학교	2026 년 7 월 4 일【시찰】구 방재대책청사
2026 년 7 월 4 일【시찰】지진유구 게센 중학교	2026 년 7 월 4 일【시찰】동일본대지진 쓰나미 전승관 이와테 TSUNAMI 메모리얼
2026 년 7 월 5 일【교류】홈스테이 해산식	2026 년 7 월 6 일【강의・시찰・교류】이시노마키 센슈대학 학생과의 공동 수업

3. 참가자의 감상 (발췌)

◆ 한국 대학생

현지에서 당시 지진 피해를 겪으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점, 홈스테이에서 솔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일본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일본의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등이 모두 좋았습니다. 또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도 평소에 일본어로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홈스테이나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친분을 쌓아가며 일본 분들로부터 직접 일본의 문화와 매너, 트렌드 등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교류가 되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직접 지진 피해 지역에 가서, 특히 게센중학교와 오오카와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담담하게 말씀해 주신 이시노마키 시립 오카와 초등학교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뉴스에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한국 대학생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방재 체험을 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피부로 느끼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방일 전에는 방재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재해의 흔적과 복구 과정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당시의 피해 규모와 희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이를 보존하여 방재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4. 일본측 감상(발췌)

◆ 일반사단법인 미나미산리쿠초 관광협회 관계자

이번에 미나미산리쿠초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류 기간 동안 지역 문화와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류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의 밝고 긍정적인 자세가 지역에 따뜻한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민박 체험에서는 일상생활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교감을 나누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는 마음의 유대가 형성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별식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에서도 그동안의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꼭 다시 미나미산리쿠초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관계자 모두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 미나미산리쿠초 호스트 패밀리

뉴스 등에서는 한일 관계가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만난 학생들은 모두 매우 우호적이고 밝으며 긍정적인 모습이어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데 대한 불안감은 금새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어도 매우 유창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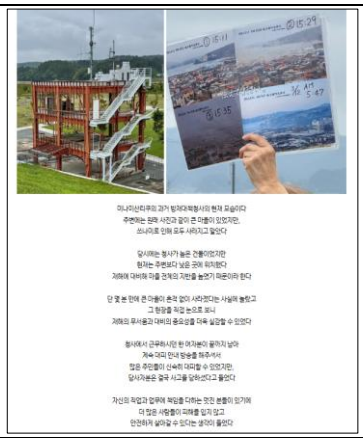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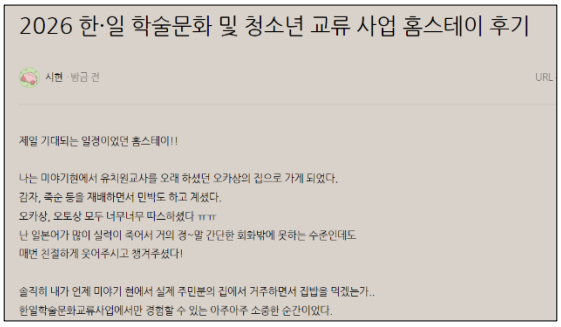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루타놀이(일본 전통 카드게임) 했을 때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미나미산리쿠에 오고 싶다”고 말해 주는 학생도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 **방문학교 학생**

평소 학교 생활에서 같은 또래의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교류 활동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국의 식문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나아가 취미나 관심사 등을 통해 상대방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국경을 넘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2026 년 7 월 2 일(Instagram : 대학방문) 오늘은 테이쿄대학에 다녀왔습니다. 테이쿄대학을 간 목적은 동시대 학생들과의 교류였는데요,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교류를 통해 동시대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정말로 체감할 수 있었고, 대학 측에서 준비해 주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일 학생들, 나아가 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 년 7 월 3 일(Instagram : 오카와 초등학교)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는 모든 방향에서 몰려오며 바닷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쓰레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오카와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장소를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하며, 오카와 초등학교는 미래를 여는 장소임을 유가족 분은 강조하셨다.

	
2026 년 7 월 5 일(Naver Blog : 구 방재대책청사) 미나미산리쿠의 과거 방재대책청사의 현재 모습이다. 주변에는 원래 사진과 같이 큰 마을이 있었지만, 쓰나미로 인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에는 청사가 높은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주변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다. 재해에 대비해 마을 전체의 지반을 높였기 때문이라 한다. 단 몇 분 만에 큰 마을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재해의 무서움과 대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청사에서 근무하시던 한 여자분이 끝까지 남아 계속 대피 안내 방송을 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지만, 당사자분은 결국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다. 자신의 직업과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멋진 분들이 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6 년 7 월 7 일(Naver Blog : 홈스테이) 제일 기대되는 일정이었던 홈스테이. 나는 미야기현에서 유치원교사를 오래 하셨던 오카상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감자, 죽순 등을 재배하면서 민박도 하고 계셨다. 오카상, 오토상 모두 너무너무 따스하셨다. 난 일본어가 많이 실력이 죽어서 거의 정~말 간단한 회화밖에 못하는 수준인데도 매번 친절하게 웃어주시고 챙겨주셨다. 솔직히 내가 언제 미야기 현에서 실제 주민분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밥을 먹겠는가…방일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아주 소중한 순간이었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를 기재함)

【성과발표】 ・이번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와	【성과발표】 ・이번 시찰을 통해 재난은 단순히 건물의 피해

홈스테이, 시찰을 경험하며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어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넓혔고, 피해 지역에서는 진재 유구와 유가족의 증언을 접하며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규모와 기억을 계승하는 중요성, 그리고 방재 의식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선 인연을 형성하고, 앞으로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높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액션플랜】 ・1) 관광 루트 설계 (연수 종료 후 2 주 이내) 이번 일정에서 시간상 보지 못한 다른 방재 유구들을 포함하여 1-2 일치 관광 코스 설계 현지에서 작성한 메모(오나가와 마을 재건 철학, 붉은 벽돌 구획, 20m 규제, 역 이전 스토리 등)를 코스별 스토리텔링 자료로 재구성 2) 홍보 콘텐츠 제작 (1 개월 이내) 각 진재유구 방문지의 사진, 해설 내용, 개인 소감을 담은 카드뉴스 및 블로그 포스팅 "재해를 피할 수 없다면, 감지하고 대비하는 도시"라는 오나가와의 부흥 철학을 핵심 메시지로 기획. 3) 온라인 배포 및 확산 (2 개월 이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오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카와초등학교와 재해유구 이와테 쓰나미 메모리얼 등을 방문하면서 당시의 피해 규모와 희생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보존하여 다음 세대의 방재 교육에 활용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나가와와 미나미산리쿠 등 복구된 지역을 보며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평소 방재 의식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액션플랜】 ・SNS 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 방재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시찰 경험을 공유한다.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일본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방재와 지역 부흥 사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한일 청년 교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양국의 문화와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한다. ・대학 내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참가를 독려한다. ・재난 대응과 방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강연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한일 간 긍정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